

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?

- 지역회복의 과제 -

임현진·공 석 기

서울대 아시아연구소

발표 내용 요약

- 1)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넘어: 세계화의 강화(RE-GLOBALIZATION) 및 해체(DE-GLOBALIZATION)를 넘어선 노력: 대안세계화(ALT-GLOBALIZATION) 추구
- 2) 세계지방화(GLOCALIZATION)에서 지방세계화(LOCABALIZATION)로
- 3) 지역회복과 풀뿌리 세계시민: 지방세계화의 능동적 실천 과정
- 4) 전지구적 위기와 도전에 대한 '비판적 성찰' 필요
- 5)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바로서기: 아래로부터의 시민권의 회복과정
- 6) '돌진적 근대화'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'특수한' 성장에 대한 이해와 광의 시민사회로의 '추격적' 확장 과정에 대한 비판적 진단 필요
- 7)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한 정보 지배체제(INFORMATION REGIME)와 ALGOOCRACY 도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전략 모색
- 8) 시민성을 갖춘 시민 실천과제: 이기적 개인주의로 무장한 개인 혹은 주민을 '시민성'을 갖춘 '풀뿌리 세계시민'으로의 성장
- 9) 풀뿌리 세계시민의 실험: '가벼운 공동체'(LIGHT COMMUNITY) 구축 실험

제 1부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넘어

세계화 (Globalization)

- 세계화(Globalization): 경제, 정치, 사회, 문화 관계의 심화과정 → 지구의식, 시공간의 압축 (Harvey 1989), 세계의 압축(compression of world). (Robertson 1993).
- 세계화는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, 강화(re-globalization)되는 동시에 해체(de-globalization)되는 양면성을 보임.
- 세계화의 해체는 인종, 민족, 종교, 언어와 연관된 소민족주의 내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해체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에, 강화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따라 세계시장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통합: 코로나 팬데믹과 미.중 패권경쟁아래 탈세계화에서 다시 재세계화로 나아 감.
- Noam Chomsky(2010, 2014): 세계화는 서구의 제국주의 지배 프로젝트로 접근함. (예) global village → global pillage로 감. 여기에는 문명 충돌 (Huntington), 글로벌 발전격차, 경제적 불평등, 사회적 격차, 정치적 양극화 등을 포함함.
-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.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자유 시장 경제 원칙.
- 전지구적 신자유주의는 결국 생산, 무역, 금융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국의 자율적 정책 플랫폼의 약화를 초래함 (Held and McGrew, 2007).

이중화된 세계화: 혼란 속의 재세계화(re-globalization)

- 이러한 배경 속에서 反세계화, 逆세계화가 기존의 세계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기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함.
- 또한, '대안세계화(Alt-globalization)'는 세계화의 명암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함.
- 대안 세계화를 옹호자들은 세계화 자체를 단호히 부정하지 않지만, 세계화에 내재된 경제적 모순을 반대함. 그들은 풀뿌리 차원의 시민 사회의 재활성화와 경제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즉 '인간적 세계화'(humanistic globalization) 강조함. (Evans, 2012).

세계화의 전개:
 국제적, 다국적, 초국적,
 전지구적(세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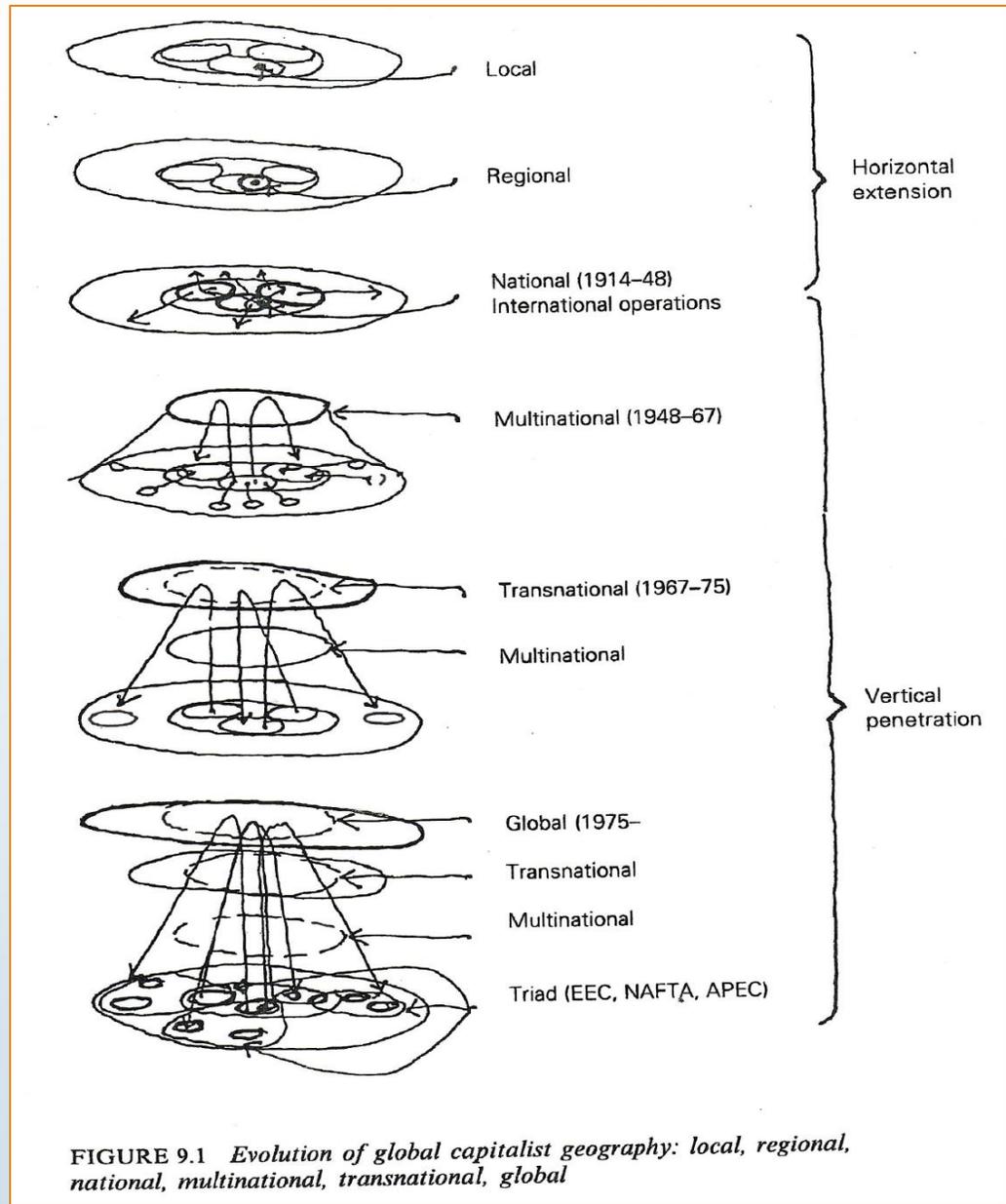


FIGURE 9.1 Evolution of global capitalist geography: local, regional, national, multinational, transnational, glob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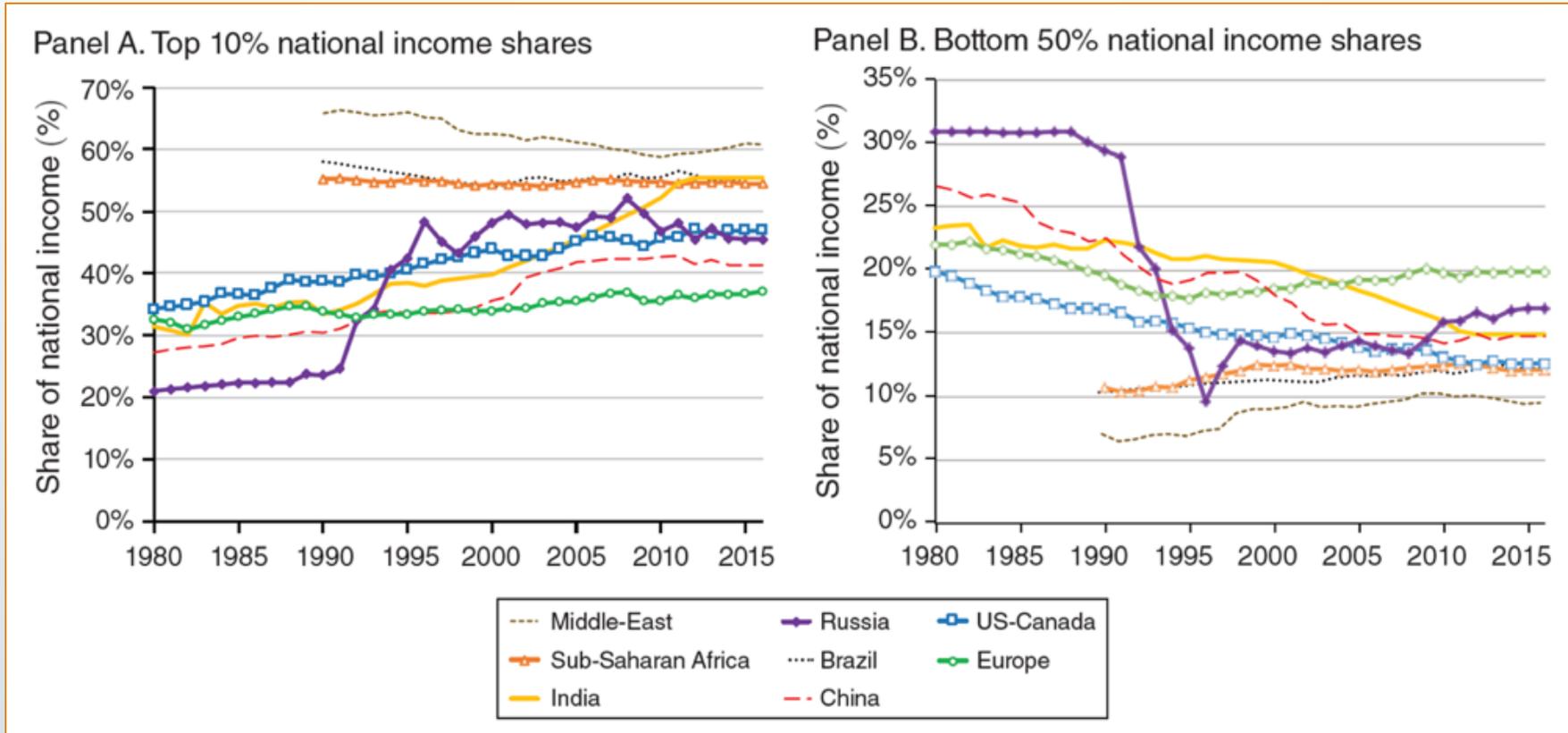
수평적 확장

&

수직적 침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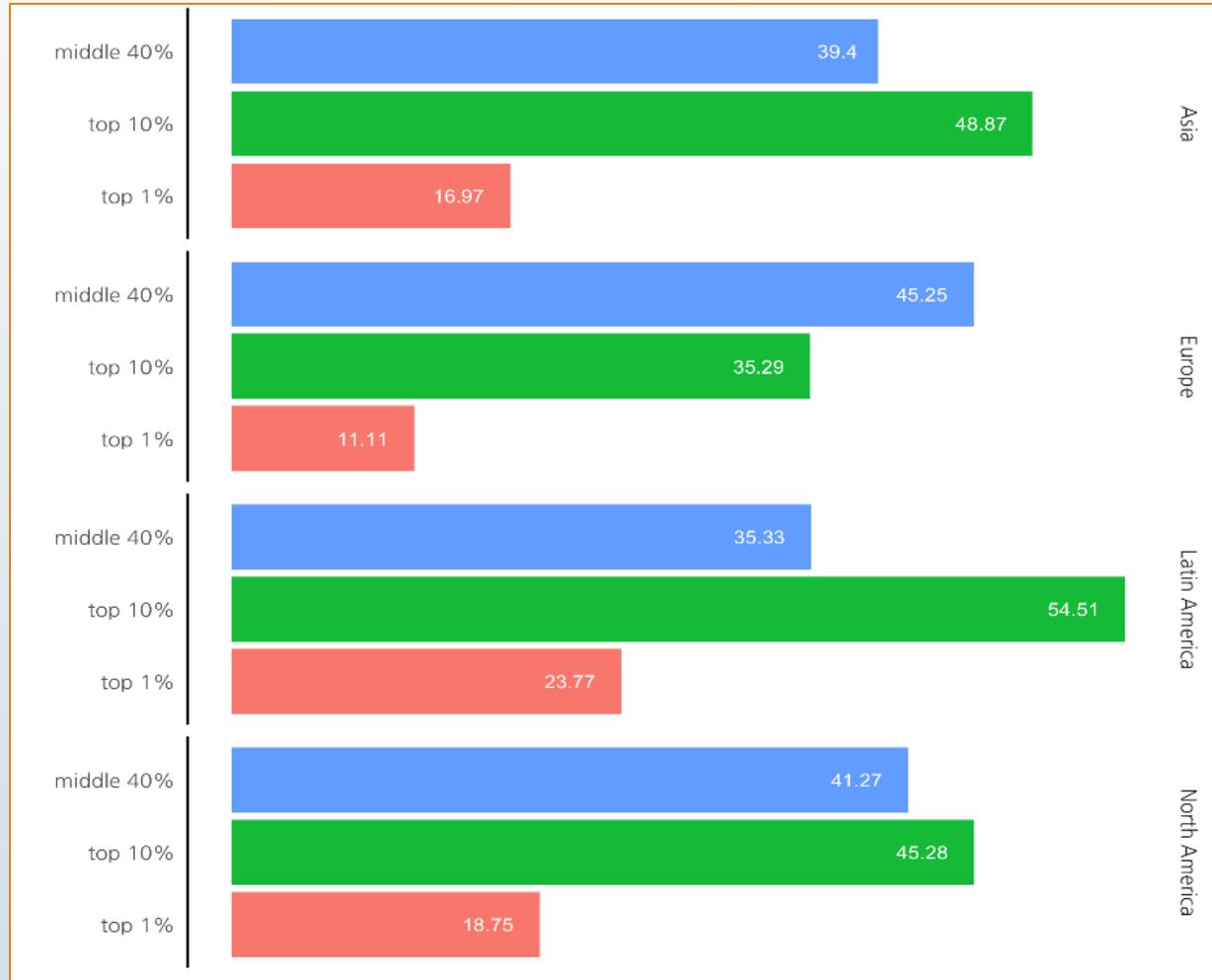
출처: Borrego 1999: 184

세계 상위 10%와 하위 50%의 소득 비율 추이 (1986-201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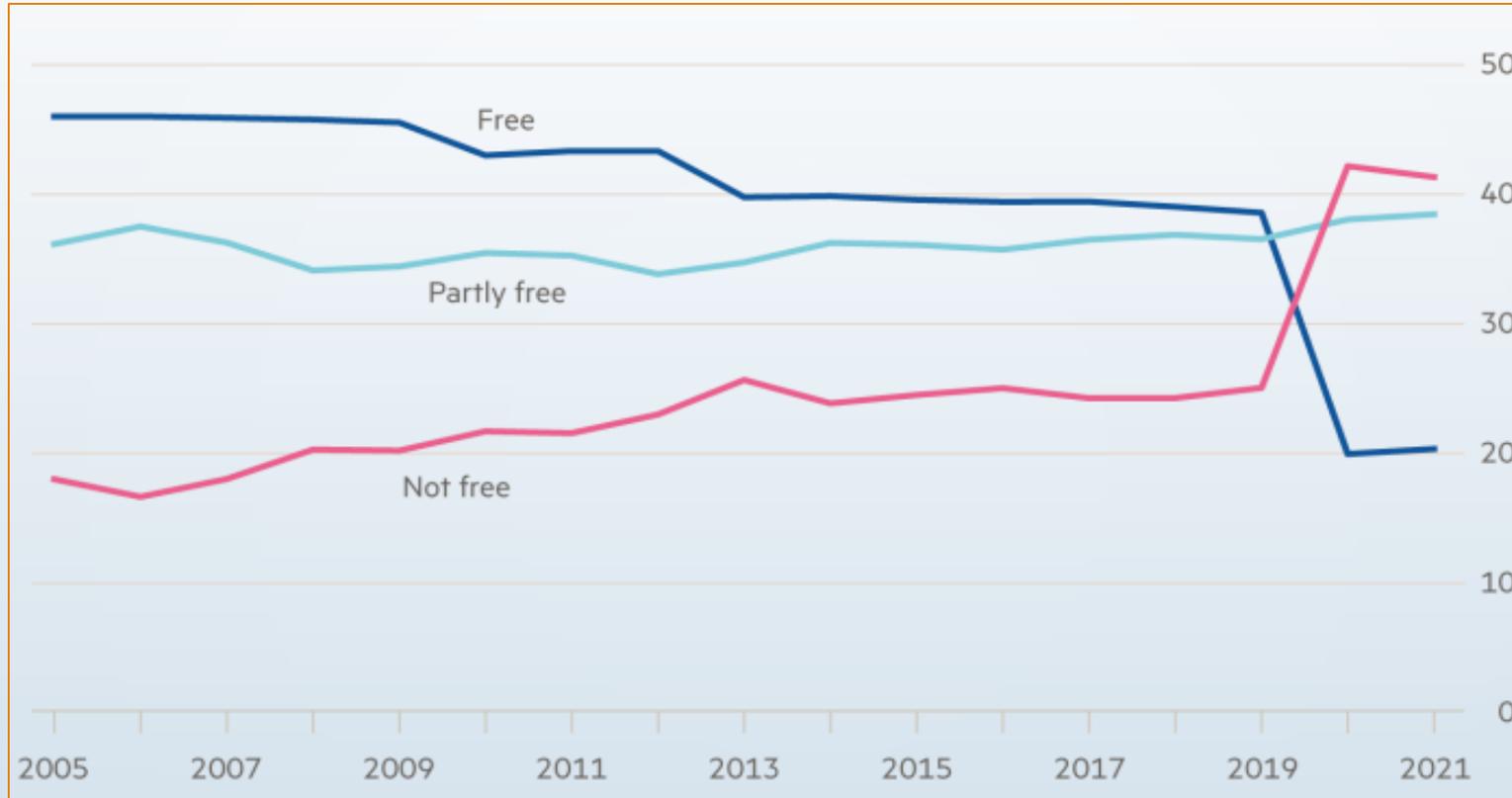
- 1980년~2016년, 상위 10%는 총 성장의 27%를 차지한 반면, 하위 50%는 겨우 12%만을 차지함.
- 상위 10%와 하위 50% 간의 소득 격차 증가하여, 중산층은 더욱 축소되고 있음.

아시아, 유럽, 라틴 아메리카, 북미의 소득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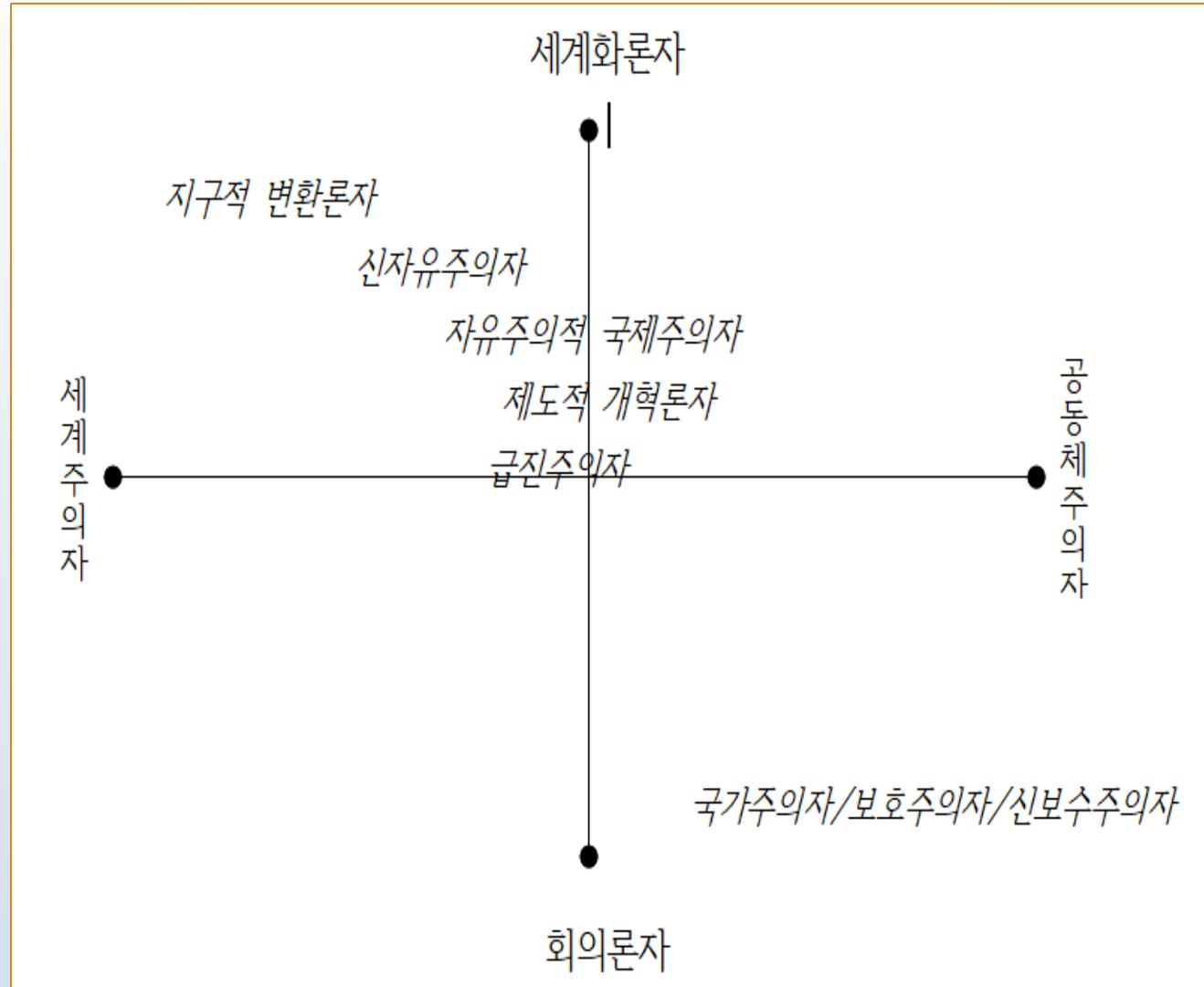
- 유럽에서는 소득 분포가 비교적 공정한 반면, 라틴 아메리카는 그렇지 않음.
- 아시아는 소득 비율 측면에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위치함.
- 북미는 아시아보다는 낮지만 유럽보다는 낮은 성과를 보임.

민주주의의 후퇴(Rollback) 추이 (전세계 인구)



- 세계화는 전례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함(Freedom House 2022).
- Free government 비율이 2005년 48%에서 2022년 20%로 감소함.

세계화 논쟁: 정치적 배치



출처: Held and McGrew 2007:187

Remaking Globaliz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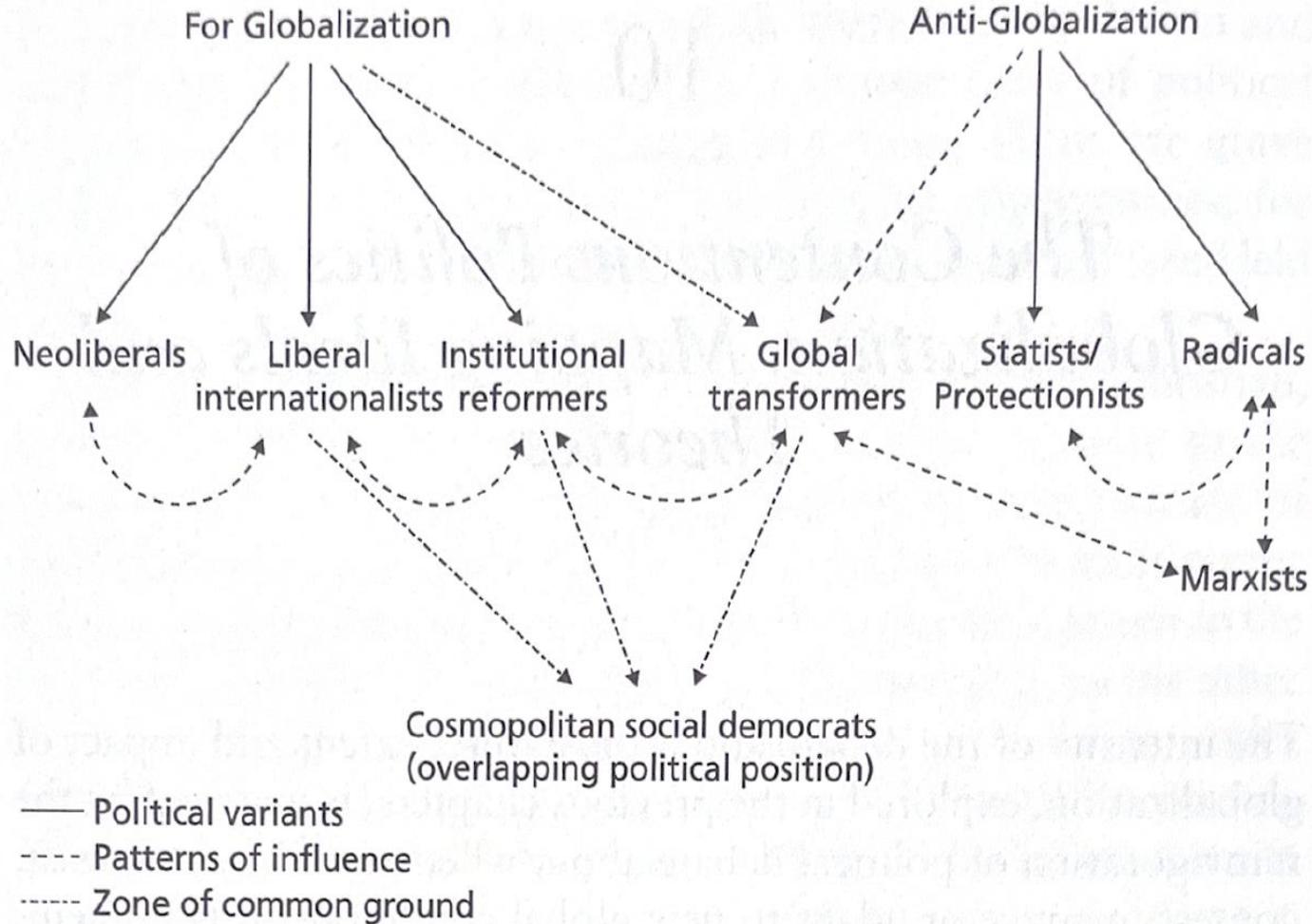


Figure 10.1 Variants in the politics of globalization

Source: Held and McGrew 2007:186

세계화 옹호론자:

- 신자유주의자
-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
- 제도적 개혁론자
- 지구적 변환론자(수렴)

반세계화 주장자:

- 지구적변환론자
- 국가주의자/보호주의자
- 급진주의자(수렴)
- 마르크스주의자

세계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(수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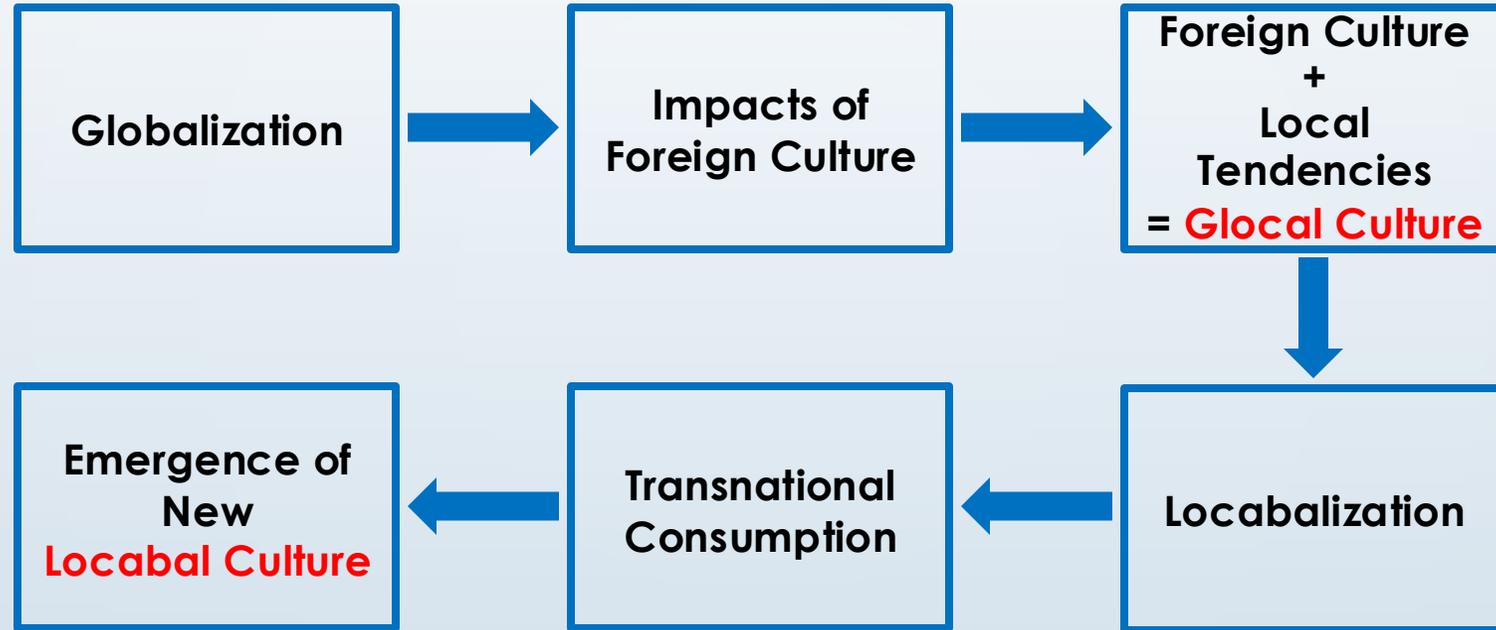
세계화 담론의 편차들

세계지방화 그리고 지방세계화의 결합

- 세계지방화(Glocalization): 사회적, 문화적, 정치적, 경제적 시스템에서 보편화와 특수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(Robertson 1997). (예) 중심에서 주변으로 (유럽에서 아시아로)
 - 지역 적응(Local Adaption) + 글로벌 이식(global naturalization)
 - 글로벌 문화: 지역과 글로벌 사이,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문화가 존재함
 - 전지구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통된 규범, 가치관, 취향을 공유함 (예) 현지화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
- 지방세계화(locabalization): 세계화를 중심이 아닌 주변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(Lim 2018). (예) 주변에서 중심부로 (아시아에서 유럽으로)
 - Localization은 중심에서 주변으로, 다시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방향 변화를 강조함.
- 글로벌 문화가 지역 맥락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각국의 필요에 맞게 옮겨지는가에 주목함. (예) 아시아의 음식(비빔밥), 의복, 주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.

세계지방화에서 지방세계화로

- 전지구적 문화 형성은 세계지방화와 지방세계화의 결합과정에서 형성



글로컬/로카발 문화 발전 과정 (세계지방화에서 지방세계화로)



Glocalization

Locabalization

제 2부 지역회복과 풀뿌리 세계시민 - 지방세계화의 능동적 실천 과정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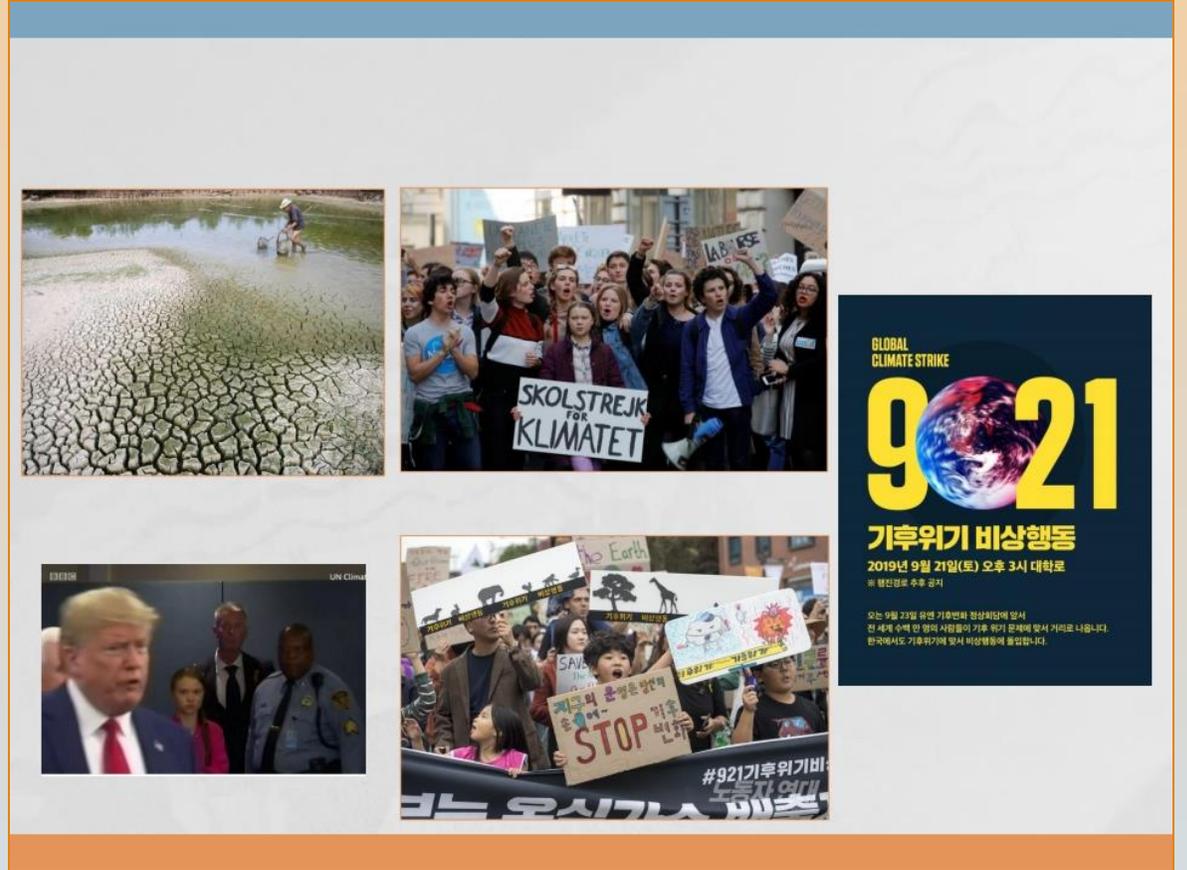
1. 사회적 맥락 변화: 안팎의 위협과 지역 소멸 위기

<국가적 위기>

- 저출산율 (합계출산율 0.72, 세계 최하의 , 2023년)
- 자살율 (24.6 명 /10 만 명당 , OECD 1 위 , 2019 년)
- 한국 평균수명 84.3 세 (2021 년 한국인구통계)
- 초고령화 사회 (65 세 이상 인구 16.8%) 진입임박
- 개인화: 1 인 가구 30% 넘음
- 지역 농촌 공동체 붕괴; 중앙-지방 격차; 지방회생
-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
-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;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

<전지구적 위기>

- 디지털 혁명, 플랫폼경제, Algocracy 도래
- 기후위기, 기후 재난
- COVID-19, 엔데믹 사회경제적 영향, 정신 건강 (외로움)
-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2020
-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2023



2. 2025년, 한국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질문

(1)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질문들

- 시민사회단체를 우회하여 정치사회 혹은 정당정치로의 쓸림을 어떻게 보는가?
- DINK(Double Income, No Kids)는 돌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
- 당신의 준거집단(reference group)은 누구인가?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?

(2) 한국시민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성찰의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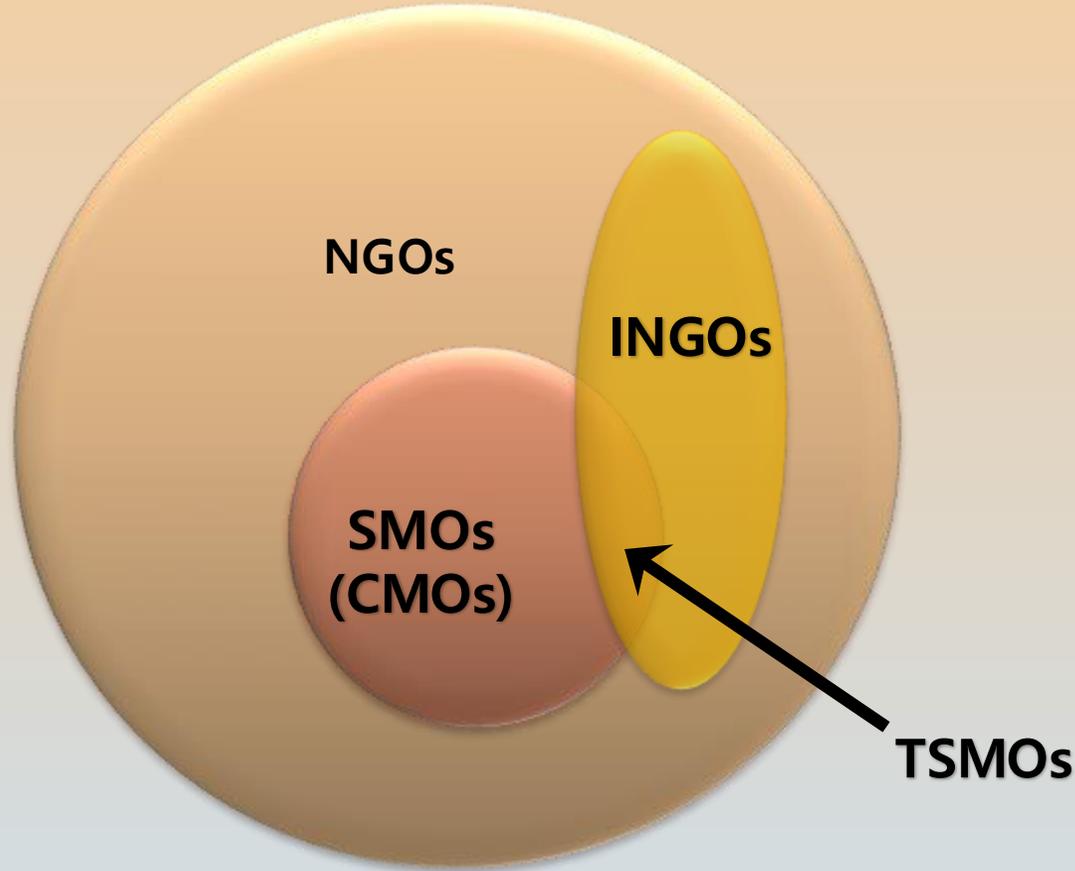
- 시민사회 내 엘리트주의를 넘어선 지식인의 역할과 참여 위기
- 정부-정당-시민사회운동의 순환적 연결고리의 부재 위기
- 디지털 혁명의 습격과 아래로부터의 저항 (sousveillance) 위기
- 세대/진영/젠더 갈등을 넘어선 소통과 협력의 담론 위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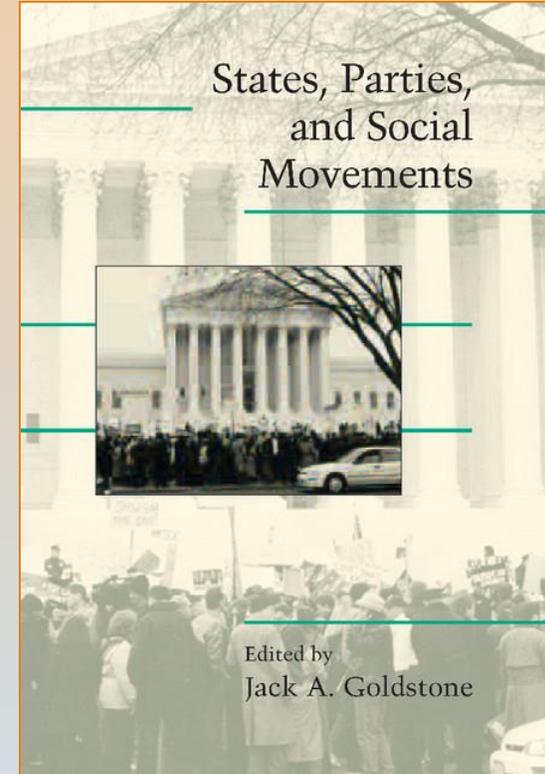
3. 시민사회, 시민사회단체, 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

- 풀뿌리 세계시민이란? Rooted Cosmopolitan (역설적 표현) 기후 재난과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한 algocracy 도전에 대한 아래로부터 저항을 주도할 수 있는 비판적 인식과 참여
- (예) 글로컬 접근, 거시와 미시의 연결, 알고크라시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아래로부터저항(sousveillance)

정부-정당-사회운동의 삼자관계 '와일드 카드'(Wild Card)로서 NGO!



출처: J. Smith et al. 1997: 13 (재구성)



Tripartite Relationship

돌진적 근대화와 한국 시민사회 단체 변화 특수성

“한국 시민사회, 단선적인 진화발전이 아니라 혼재와 부침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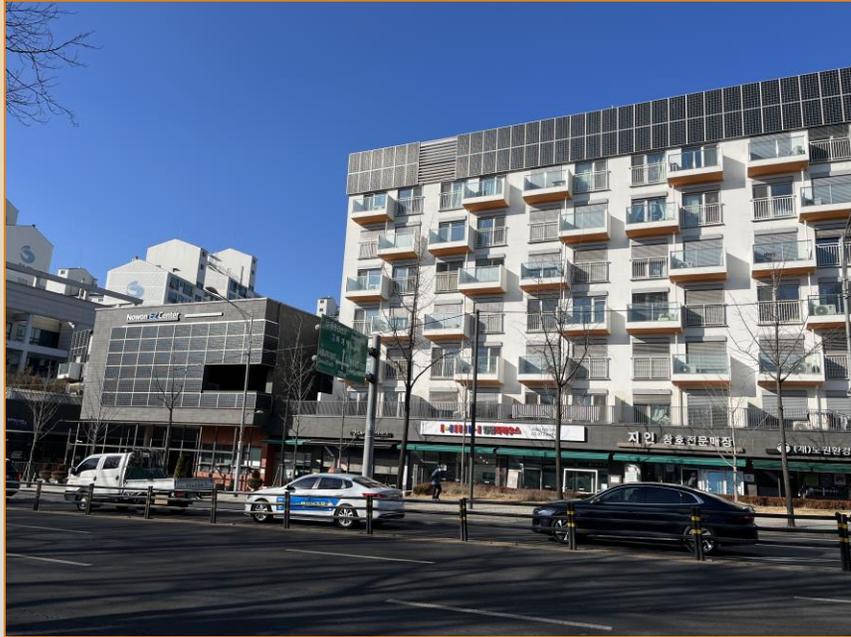
출처: 공석기·유지연. 2017: 34쪽 재인용.

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확장과 부침

- 역사성 및 특수성 (not evolutionary)
- 정치사회로 떠난 전문가
 - 시민사회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
- 사회운동의 과잉사회화 & 사회운동사회
 - 여성가족부: 제도화의 부메랑
 - 다문화 정책: '다문화' 낙인화
 - 전장연 활동에 대한 이해와 오해: '자원동원'의 길

위로부터 추격 그리고 시민사회의 수동적 참여:

노원구 EZ House & 새만금 태양광 사업



소통정치의 중요성

- 지역 주민의 인내 끈기 그리고 회복력
-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혁신
- 협치 : 왜 접두사가 있는가? Good, Transparent, Democratic Governance
-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(시민성): 주도성 , 자율성 , 책무성
- 수평적 의사결정과 소통의 정치; *일상의 공간에서 소통 정치 구현하기*



Talking Politics Matter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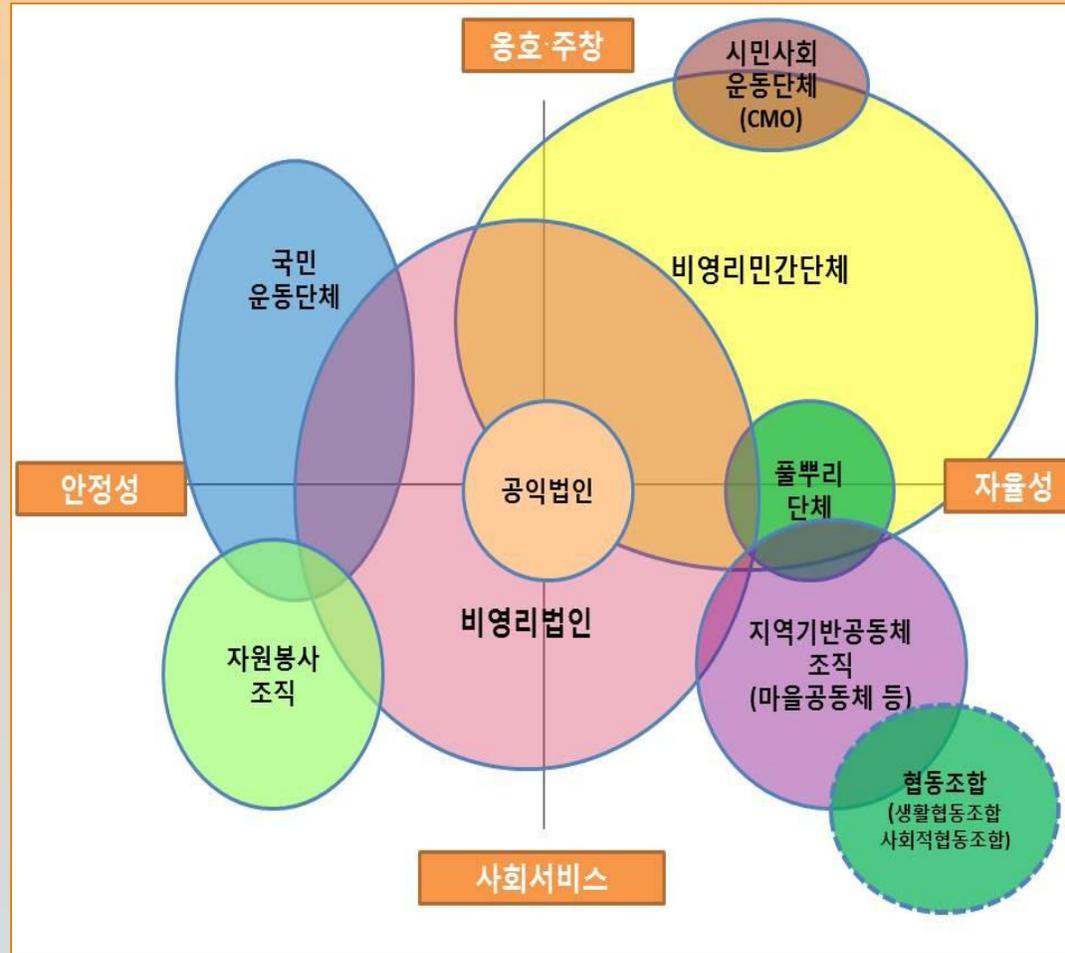
Algocracy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저항



아래로부터의 급진적 투명성 제고 전략

- 빅데이터 알고리즘 : 정치사회경제 활동 감시 및 유인
- 정치 및 경제 지배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하기
- 풀뿌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활동
- 새로운 기술 동원전략
(예) Google glass, and similar wearable monitoring devices
- 감시와 개인 정보보호 간의 균형
- 정보 및 자료 집중 vs. 정보 분산전략

3. 한국 시민사회의: 광의 시민사회로의 확장



* 안정성-자율성: 정부와의 관계 측면
 * 옹호/주창 - 사회서비스: 사회적 역할 측면

출처: 공석기·유지연 (2017: 36쪽 재인용)

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(분석틀)

4. 한국 시민사회 단체를 위한 비판적 성찰

< 회원에 대한 생각 >

- 주민과 시민 '사이'
- 정체성, 소속감 그리고 연대활동 감소
- 전문가 참여 감소: 운동가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가 운동주의
- 1인 NGO의 증가: '운동성'의 견지와 사회혁신의 추동
- 이주민 회원 참여와 다양성 제고: 시민사회의 새로운 구성원
- 플랫폼 경제로 수렴, 불안정 노동(precariat)의 포용과 참여



- 플랫폼 노동자
- Survivor
 - Striver
 - Struggler

A. Ravenelle (2019)

<협치(governance)에 대한 생각>

- 끈기-소통-참여-혁신의 순환적 연결고리
- 중간지원조직, 아래로부터 구성 전략
-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: 비판적 갈등과 경쟁
- 솔루션과 임팩트 초점: 정책간 경쟁
- 가치 갈등을 넘어 가치 전쟁의 중요성



EZ House (서울 노원구)



재생에너지(제주 가시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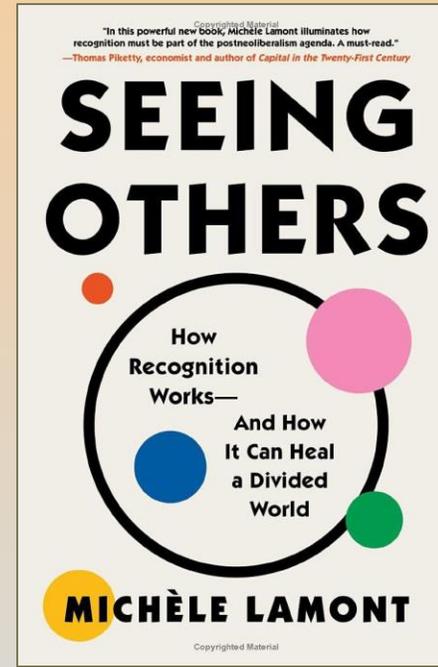
로컬푸드 & iCOOP (충북 괴산)

5. 대안으로서 비판적 실천과제

- ‘운동성’의 회복 (activism: change, challenge, conflict)
- ‘디지털 플랫폼’을 통한 보이지 않는 지배에 대한 응전 (sousveillance)
- ‘MZ 세대’를 향한 두가지 마음의 균형 잡기 (Career & cause development)
- 선순환적 ‘자원 동원’ 메커니즘 구축하기 (extension to interest group)
- ‘풀뿌리 세계시민’으로 바로 서기 (rooted cosmopolitan citizenship)

풀뿌리 세계시민: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체득

- J. A. Scholte's five roles (2003)
 - 공공교육: civility and awareness
 - 공공토론: deliberation and persuasion
 - 공공참여: engagement and involvement
 - 투명성: openness and accessibility
 - 책무성: monitoring and responsibility
-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다시 서기
 - Seeing Others (M. Lamont 2023)
 - Hapticality (접촉능력)
 - 경청민주주의 (한병철, 2023)



“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직접적 소통과 만남이 약화되어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다. We are easily connected but incompetent”

- 
- 자치와 분권: 주민자치의 중요성
 - 풀뿌리 세계시민= 일반 시민으로서 citizen expert, civic culture, civic engagement 관련됨
 - 세계화 시대 한국인: 복합적 정체성 <>나=신촌 사람, 서울인, 한국인, 아시아인, Bostonian, New Englander... 세계인
 - 통상 인간은 국가적 테두리 안에서 정체성 유지 위해 인접국가에 대한 호불호 감정 교육 <>반일, 반중, 반미 등 배제의 정치, 혹은 친일, 친중, 친미 등 포섭의 정치
 - Hegel= “현실적인 것이 합리적이다” + Kant= 보편주의
 - 세계화의 시대: 세계주의, 지역주의, 민족주의 혼효.
 - 정체성의 정치: 보편주의를 실제로는 특정한 집단의 가치와 원리이면서도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가치로 위장된 이데올로기
 - 서구는 보편주의란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와 원칙 강요=서구 백인의 정체성 정치

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!



신야 오오미나미 (가미야마/ 도쿠시마현)



이쿠코 사이토 (가미야마)



히데히코 미타 (다테야바시/군마현)



도코로 센세이 (가미이치/도야마현)



테루미 아주마 (가미가초/ 도쿠시마현)



조은미 (한강사회적협동조합/ 서울)



Dr. San-Ju Yu (둘란/Taitung)



교코 센고쿠 (타나베/ 와카야마현)

풀뿌리 세계시민 사례 1: 도쿠시마현, 가미야마(神山) 지역재생 프로젝트

- 이쿠코 사이토
- 신야 오미나미
- 주냐 사노



Photo: Shinya Ominami.
(Courtesy of NPO Green Valley)



풀뿌리세계시민 사례 2: 군마현, 다테야바시의 사회적경제 프로젝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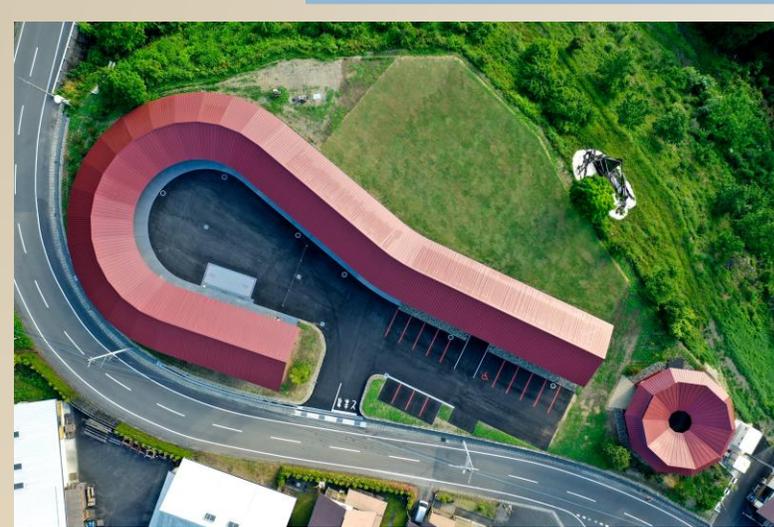
정글딜리버리 - 미타; 다테야바시 호텔 - 노리코; 청년 귀농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

풀뿌리세계시민 사례 3: 도야마현, 가미이치



- 도코로: 에코투어리즘 프로젝트 (쓰루기다케);
- 귀농 & 로컬푸드 (대를 이은 농업; 열린 자세)
- 인턴십 프로그램 (도요대, 가미이치, 주민)
- 시니어 주도 체험학습 프로그램

풀뿌리세계시민 4: 도쿠시마현, 가미가초 ZERO WASTE PROJECT



Azuma Terumi 그리고 그녀 어머니 헌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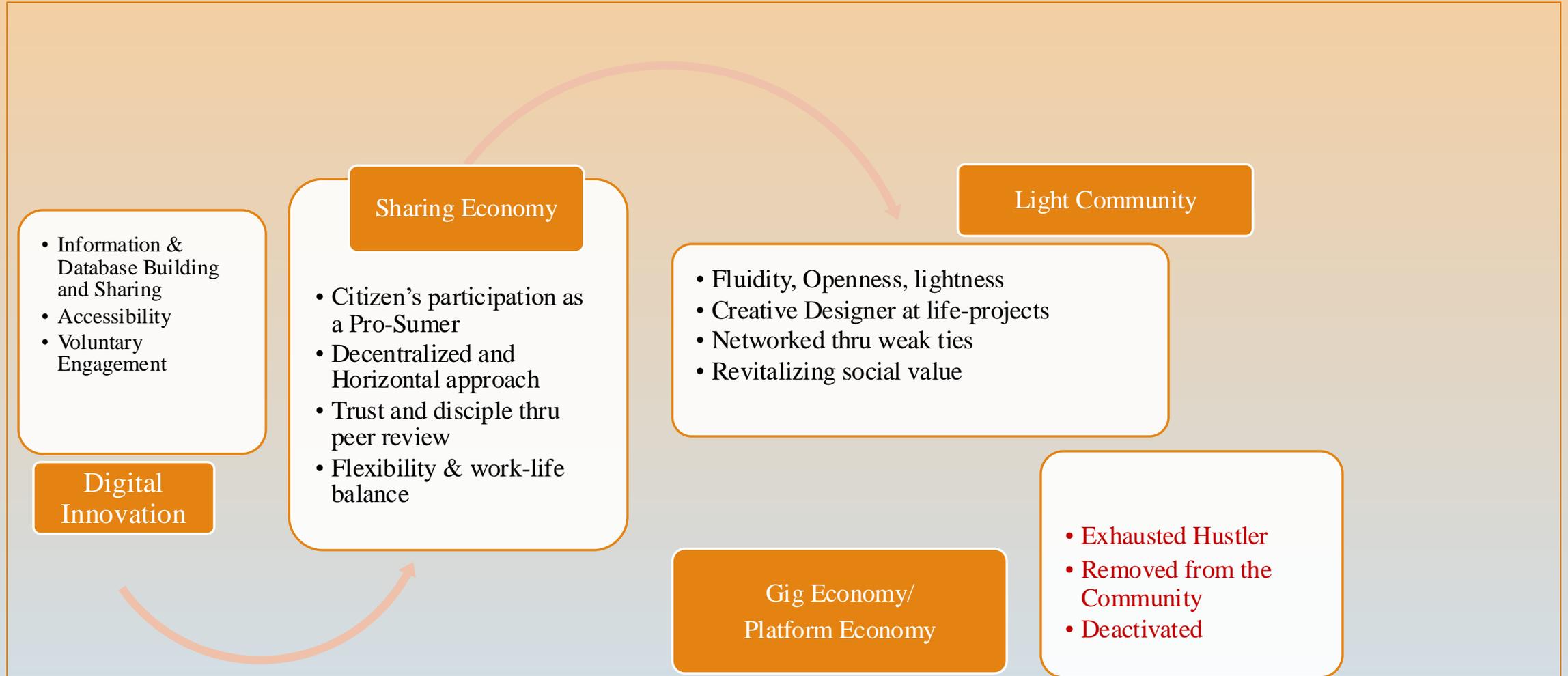
풀뿌리세계시민 사례 5: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(환경, 커뮤니티, 자원봉사, 인문/생태의 만남)



- 조은미 한강 이사장
- 염형철 한강 대표



6. 시민사회의 새로운 미래: '가벼운 공동체 (Light Community)' 구축 전략



출처: E. Manzini (2019) *Politics of the Everyday* (저자 재구성)

풀뿌리 세계시민의 끈기와 연대가 민주주의 제고에 기여

- 풀뿌리세계시민은 지역이 마주한 공동의 위기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차별 요소와 경계를 넘어서고, 구체적 장소에서 서로 만나고, 경청의 자세로 듣고, 소통하는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.
- 들은 상호 이해하고, 함께 궁리하고, 지역 맥락에 적합한 창의적 대안을 합의과정을 통해 구성한다.
- 에 기초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, 구성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.
- 궁극적으로 이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



출처: 협동조합의 성지, 이탈리아 Trento (공석기)

Q & A

